



미 증시, 금리 상승, 인플레 경계감 등으로 약세

미국 증시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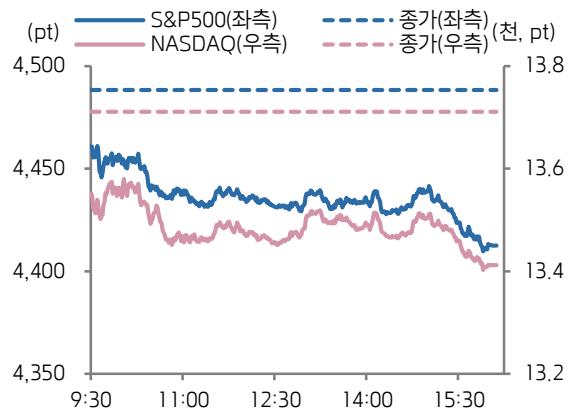
11일 (월) 미국 증시는 미국 3월 소비자물가지수 발표를 앞둔 경계감, 금리 상승 부담에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 S&P500 지수는 0.6% 하락 출발 이후 테슬라(-4.8%), 애플(-2.6%), 알파벳(-3.2%), 마이크로소프트(-3.9%) 등 대형 성장주들의 급락세로 장중 빠르게 낙폭을 확대하며 장중 저점 부근에서 마감. 아시아 증시에서 2.77%를 상회한 미국 10년물 금리는 미국 현물시장에서 2.78%까지 상승하며 성장주들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 증시는 미국 CPI, 어닝시즌 등을 주요 이벤트들을 앞두고 VIX 지수(24.4pt) 15% 급등, 금 가격이 상승하는 등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진 모습을 보임(다우 -1.19%, S&P500 -1.69%, 나스닥 -2.18%, 러셀 2000 -0.71%).

금리 상승 요인으로 다음날 미국 3월 소비자물가지수(예상 YoY +8.4%, 전월 +7.9%)에 대한 경계감,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중국 물가 지표(3월 CPI YoY +1.5% vs 예상 +1.2%, PPI +8.3% vs 예상 +7.9%), 연준위원들의 발언들도 매파적인 발언 등이 있었음. 예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는 “올해 말까지 중립 금리까지 도착하길 원한다면 (5월 FOMC에서 50bp 금리 인상을 진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발언.

업종별로 전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에너지(-3.1%), 통신(-2.9%), IT(-2.6%)의 낙폭이 가장 컸던 반면, 산업재(-0.3%), 소재(-0.5%), 필수소비재(-0.5%)의 낙폭이 상대적으로 가장 작았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1% 급락, 금융(-0.5%)도 금리 급등세에도 불구하고 하락. 한편, 다우 운송 지수(+0.4%), 다우 항공 섹터 지수(+2.7% 상승)는 유가 하락의 수혜 기대감에 상승.

종목별로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5.2%) 등 기술주들의 낙폭이 가장 컸음. 특히 엔비디아는 소비자 PC 수요 둔화로 투자의견을 하향한 베어드 여파로 낙폭이 컸음. 리오프닝주들은 델타(+4.0%), 사우스웨스트(+3.4%), 카니발(+1.1%) 등 상승, 에어비엔비(-1.4%), 엑스피디아(-1.4%) 등 하락하며 혼조세를 보임. 한편 AT&T(+7.7%)는 워너미디어의 분사가 완료되었다는 소식에 급등.

S&P500 & NA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S&P500	4,412.53	-1.69%	USD/KRW	1,233.30	+0.64%
NASDAQ	13,411.96	-2.18%	달러 지수	99.99	+0.19%
다우	34,308.08	-1.19%	EUR/USD	1.09	+0.05%
VIX	24.37	+15.17%	USD/CNH	6.39	+0.28%
러셀 2000	1,980.32	-0.71%	USD/JPY	125.36	+0.82%
필라. 반도체	3,055.09	-2.09%	채권시장		
다우 운송	14,527.20	+0.39%	국고채 3년	3.219	+21.9bp
유럽, ETFs			국고채 10년	3.320	+13.9bp
Eurostoxx50	3,839.62	-0.49%	미국 국채 2년	2.506	-0.6bp
MSCI 전세계 지수	702.13	-0.04%	미국 국채 10년	2.771	+7.1bp
MSCI DM 지수	3,012.19	-0.06%	원자재 시장		
MSCI EM 지수	1,127.93	+0.17%	WTI	94.84	-3.48%
MSCI 한국 ETF	68.38	-0.75%	금	1957.1	+0.59%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 시 30 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0.75%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1.25% 하락. 유렉스 야간선물은 0.34%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235.72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2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앤비디아(-5.2%) 등 미국 테크주 급락이 국내 관련주들에게 미치는 영향
2. 국내 장 마감 후 발표 예정인 미국 인플레이션 지표를 둘러싼 경계심리 장중 확산 여부
3. 원/달러 환율 레벨 부담에 따른 외국인 순매도세 지속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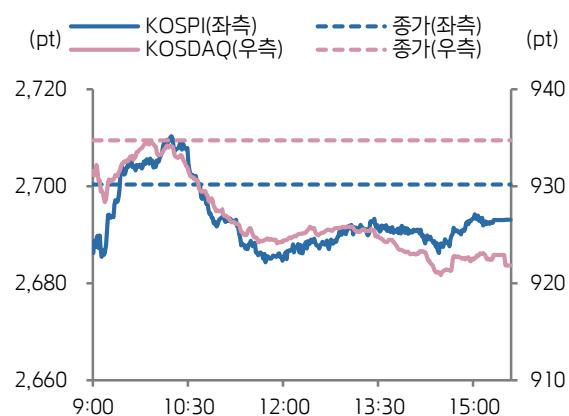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미국 증시 장중 미 10 년물 국채금리가 2.79%선까지 도달하는 등 금리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기술 및 성장주를 중심으로 조정 압력을 가하고 있음. 지난 3 월 FOMC 의사록에서 확인된 연준의 강도높은 양적 긴축에 대한 여진 속 인플레이션 경계심리가 금리 상승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뉴욕 연은에서 발표한 1 년 기대인플레이션은 6.6%로 지난 2 월(6.0%)를 상회하면서 2013 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금융시장 뿐만 아니라 실물 경제단에서도 인플레이션 불안이 좀처럼 해소되지 못하고 있음.

결국 12 일 발표 예정인 3 월 미국의 소비자물가(컨센서스 8.4%YoY, 전월 7.9%)가 증시의 단기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전망. 현재 백악관에서는 3 월 소비자물가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반영이 되면서 비정상적인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고한 상황. 3 월 수치 자체는 높게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으나, 3 월 중순 이후 국제유가 등 주요 원자재 가격들이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또 최근 물류대란발 인플레이션을 재차 유발한 상해 봉쇄 조치의 경우, 상해 당국이 11 일 이후 상해의 약 40% 지역에 대한 봉쇄조치를 완화시켰다는 점도 안도 요인. 해당 지역에서의 봉쇄조치가 4 월 말에 종료될 가능성 있는 만큼, 2 분기 중 미국의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전망은 유효하다고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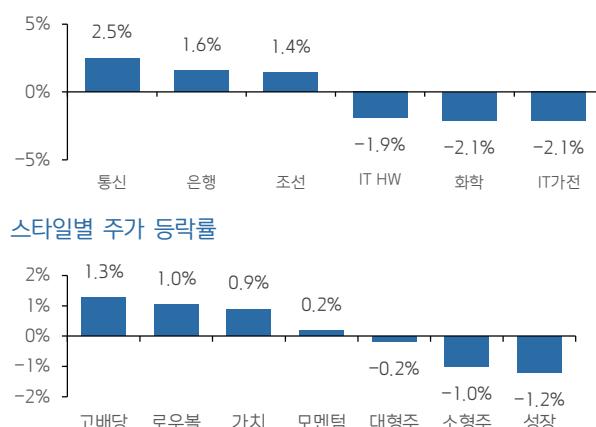
금일 국내 증시는 미국 3 월 인플레이션 지표 경계심리, 나스닥 급락 등에 영향을 받으면서 약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 최근 매크로 불확실성 확대로 코스피가 2,700 선을 재차 하회했다는 점이 부담이지만, 11 일 종가기준으로 코스피의 PBR(12m fwd)은 0.99 배이며, 지난 1 월 증시 조정기에도 해당 레벨이 지지선 역할을 했었다 점을 상기해볼 필요. 더 나아가, 금주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 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상존한다는 점도 국내 지수의 하단을 지지해주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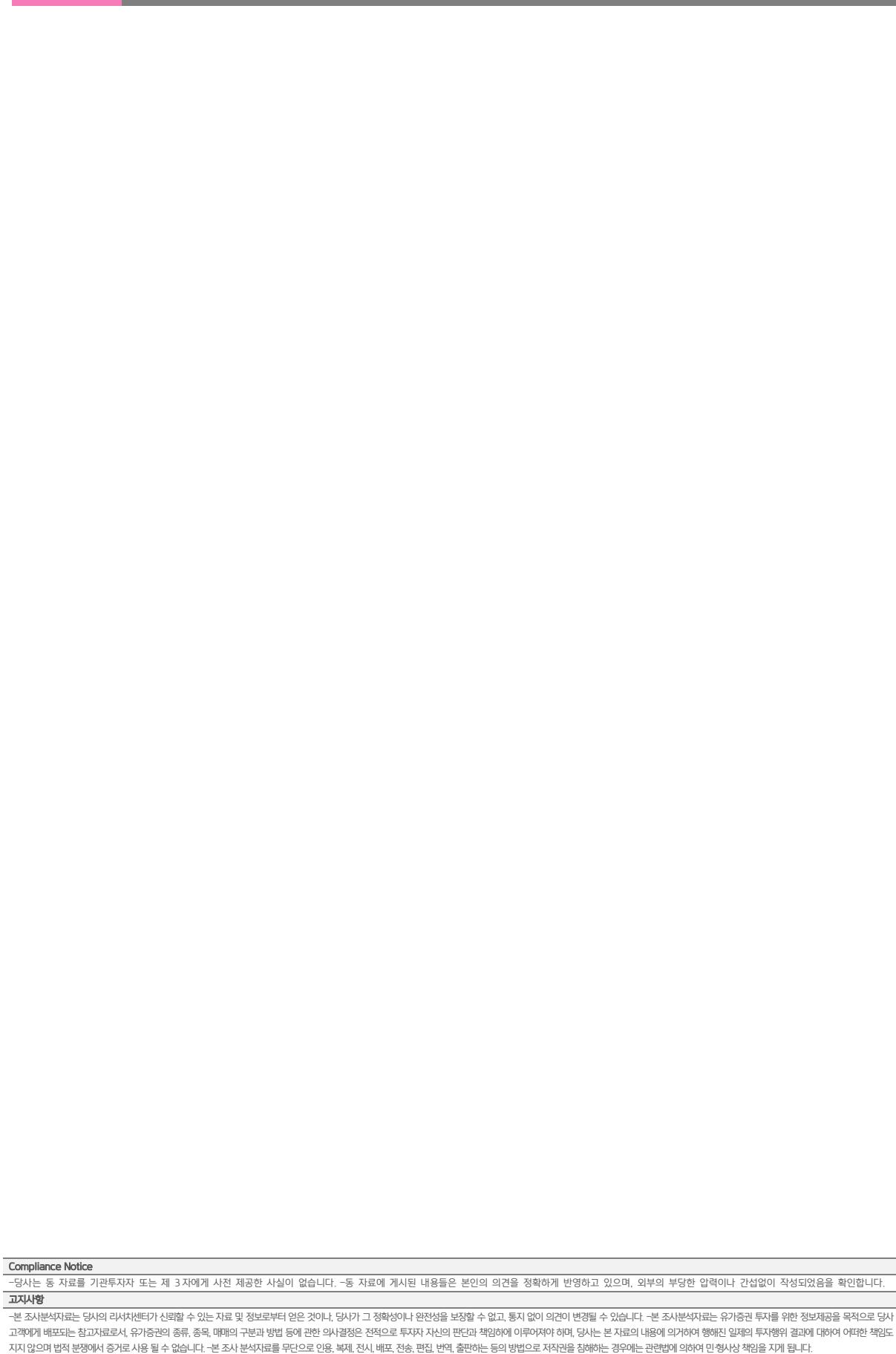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Quantwise, Fnguid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시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시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있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시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시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징계 됩니다.